

# “규제특구제도 운영 유연화 등... 신산업 진입장벽 없애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토론회  
메뉴판식 규제특례 실효성 강화 필요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혁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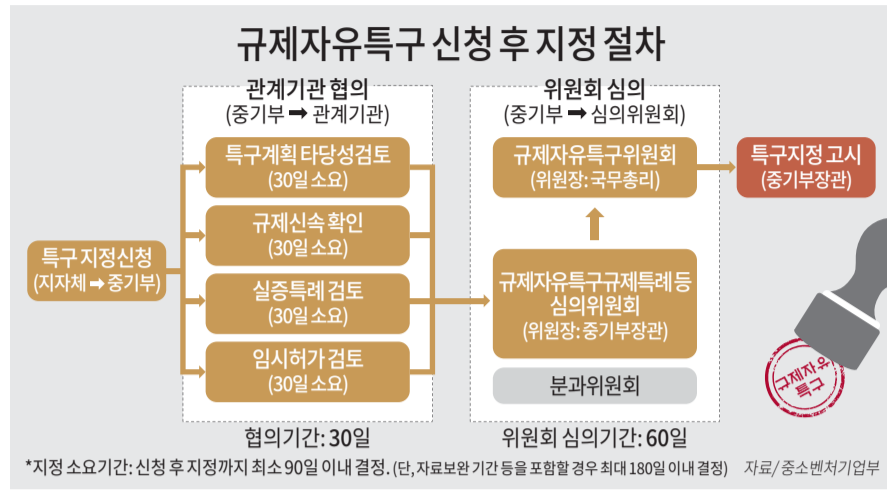
올해로 4년째를 맞는 규제자유특구가 기업들의 신산업 진입 장벽을 없애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특구사업자 추가 관련 변경 절차 완화, 특구제도 운영 유연화, 메뉴판식 규제특례 실효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소관부처의 규제 정비 이행력 확보를 위해 위원회를 통해 개선을 권고하는 등 실증특례 관계 법령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전문가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처음 도입한 규제자유특구는 윤석열 정부로 이어지면서 올해 7차까지 총 32개 특구가 지정돼 현재 75개 실증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8월 초에는 ‘규제자유특구 고도화방안’을 수립해 특례실증기간 확대, 신청대상 확대 등 개선방안을 추가로 마련하기도 했다.

20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구



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노용호 의원(국민의힘)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혁신성장의 주역 규제자유특구! 한국 경제의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규제자유특구 고도화 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중기연구원 최수정 서비스·혁신연구실장은 기초발제를 통해 “특구를 통해 지역산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무엇보다 기업의 참여 확대가 필연적이지만 현 제도는 추가적으로 사업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자들은 특구사업자로 인정되기 어려워 특구로 진입할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지원대상이 ‘규제특례 등을 적용받는 자’로 한정돼 있고, 최초 기획부터 참여한 실증특례사업자만 지원받는 동시에 추가 변경·확대가 쉽지 않은 점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최수정 실장은 “특구 사업자가 자신이 협력할 필요성이 있는 기업을 발굴해 지자체에 특구사업자로 추가 지정을 신청하면 사전공고 및 부처 협의의 기간을 단축하는 등 특구계획 변경 절차를 완화해야 한다”면서 “‘규제자유특구협력사업자’ 개념을 도입해 특구제도 운영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현재 타 법령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해 반영하거나 향후에도 신기술 변화 등을 반영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등 메뉴판식 규제특례 실효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메뉴판식 규제특례’는 현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부여한 규제 특례 123개를 준용하고,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79개를 추가 반영해 총 201개가 적용되고 있다.

최 실장은 “123개 규제 특례 대부분은 규제자유특구 도입 이전부터 운영해 오던 특례들로 신기술, 신서비스와 무관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 타 법령의 개정법령 내용도 메뉴판식 규제특례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를 현실에 맞게 뜯어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 구역계획이 인정되면 자율주행, 무인항공기(드론), 전파 이용 등 미래기술 관련 한정적 특례만을 우리나라의 메뉴판식 특례와 같이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실장은 이와 함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위해 소관부처 법령 정비 검토 처리시간 명시 필요 ▲소관부처 법령

정비 결정의 경우 정비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심의위원회에 이행 실태 점검 권한 부여 방안 검토 ▲소관부처의 규제 정비 이행력 확보위한 위원회 통한 개선권고 기능 필요 등 실증특례 관계 법령 정비 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4년차를 맞은 규제자유특구는 3조원의 투자유치와 약 3000명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규제자유특구의 내실화를 위해 우수 특구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고 부실화는 방지하는 등 사후 관리에도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신산업 혁신 촉진’을 포함하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지난 9월 말 ‘특구 상생이음’을 본격 출범하고 기존에 각 특구가 개별적으로 실증을 추진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연관 분야에서 실증을 추진하는 타 특구 참여기관들과 실증 결과·노하우 공유 뿐만 아니라 신산업 제도 정비 시 관계 기관에 공동 대응하는 등 특구간 연계·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2세대 단점 해결 기보, 방위산업 관련 中企 추가 지원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 등 적용  
취침 기능 외 찜질 기능도 지원



귀뚜라미의 3세대 카본매트.

귀뚜라미가 3세대 카본매트 프리미엄 신제품을 통해 누수, 세균, 물빠기, 물보충, 전기료 등 2세대 온수매트의 걱정거리를 완벽히 해결하며 난방매트 시장의 세대교체를 주도하고 있다.

20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숙면을 도와주는 다양한 슬립테크와 편의 기능을 탑재한 ‘2023년형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 신제품 3종을 출시하고 난방매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23년형 귀뚜라미 3세대 카본매트 온돌’은 소비자의 선택 폭을 높이기 위해 ▲업계 최초로 본체와 탈부착 할 수 있는 스마트 리모컨 형태의 ‘98시리즈’ ▲다이얼 기능으로 더욱 편리한 ‘96시

리즈’ ▲직관적인 조작 능력이 우수한 ‘95시리즈’ 등 총 3가지 모델이 있다. 이들 제품은 잠잘 때 체온 변화에 따라 숙면 온도를 유지해주는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는 취침 후 더위에 뒤척이지 않도록 처음 3시간 동안 천천히 온도를 내려 깊은 잠을 유도한다. 기상 전 사람의 체온이 떨어지는 점을 고려해 2시간 전부터 다시 온도를 올려 따뜻하고 상쾌한 기상을 도와준다.

또한, 숙면에 들고 개운하게 깰 수 있도록 9시간 동안 33℃의 포근한 온도를 유지해주는 취침 기능, 2시간 동안 50℃의 고온으로 피로를 풀어주는 찜질 기능을 지원한다.

매트 좌우의 온도를 각자 체온에 맞도록 조절할 수 있는 분리 난방도 제공한다. 25℃에서 45℃까지 1℃ 단위로 정밀한 온도제어가 가능해 같은 공간에서도 서로의 온도 취향에 맞춰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보증비율 상향, 보증료 감면 등 혜택

기술보증기금이 방위사업청, 중소기업은행과 손잡고 방위산업 관련 중소기업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기보는 지난 18일 경기 과천 방사청에서 방사청과 ‘방위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아울러 중소기업은행과는 서면으로 ‘방위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기보와 방사청, 중소기업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방위산업 영위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을

강화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국정과제에 적극 부응해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기보는 ▲방위산업체 지정기업 및 협력업체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계약·R&D·하도급 기업 ▲방산물자 수출 허가·계약 기업 ▲방위산업 육성지원사업 및 국제경쟁력강화지원사업 참여기업 ▲DQ(Defense Quality)마크·DQMS(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기업 등에 대해 보증비율 상향(85→90%), 보증료감면(0.3%p ↓),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등을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태양광 발전소 추가 설치

아이오베드에 약 800KWh 규모 건설

코웨이가 태양광 발전소를 추가 설치해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한다.

20일 코웨이에 따르면 경기 파주에 있는 자회사 아이오베드 건물 옥상에

약 800KWh 규모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내년 상반기 중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코웨이는 국내 태양광 1세대 기업인 신성이엔지와 협업해 이번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관리한다.

현재 코웨이는 공주 유구공장(49.5KWh 규모), 인천공장(39KWh 규모), 경기 포천공장(45KWh 규모) 및 유구 물류센터(1048.8KWh 규모)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여나가는 등 ESG 환경 경영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김승호 기자

## 에이스침대, 이마트24와 커피·빵 만든다

‘클럽 에이스’ 협업 상품 선봬

에이스침대가 이마트24와 손잡고 ‘클럽 에이스(CLUB ACE)’ 협업 상품을 선보였다.

20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서브브랜드 ‘클럽 에이스’를 론칭하고 이마트24와 제휴를 맺었다. 클럽 에이스는 각자의 일상에서 에이스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담은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침

대 제품만으로 소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타깃층을 대상으로 브랜드 경험 확대에 적극 나선다.

에이스침대와 이마트24는 이번 협업을 통해 고객이 공감할 수 있는 컨셉의 상품을 기획했다. 프레시푸드(FP)를 비롯해 마카롱, 아이스크림 등 디저트 제품까지 에이스침대의 기능적, 정서적 가치를 담아 기획된 총 7가지 제품을 순차 선보일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서울시, ‘빛공해 방지’ 업무추진실적 3년연속 1위 평가  
▲코로나 사망 3만명·94% 고령...전 세계 35번째로 많아 /사진 뉴시스

▲“이런 경우도 국민연금 권리구제 될까요”...사례집 발간  
▲“공직 채용정보 한자리 모였다”...공직박람회 개막



▲화물차에 지하철까지 “총파업”...노동계 ‘동투’ 거세진다  
▲서울 軍공사장서 노동자 매물 사고사...중대재해법 조사 /사진 뉴시스